

연화제 50주기... 송고한 구도정신 기린다

고불회, 7월 3~5일 월정사서 '50주기' 연화제 마련

열 송이 못다 핀 연꽃이 부처님 품에 내려앉은 지 어느덧 50주기. 고려대불교학생회가 연화제에 잠든 10명의 선배들을 기리는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다.

50년 전 1965년 7월 10일, 고려대불교학생회 학생 10명이 급류에 휩쓸려 생을 마감했다. 오대산 월정사 수련대회를 위해 10일 간 머무르던 중 마지막 날, 원보산 스님 장례식 참석 후 월정사로 돌아오던 길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참변을 당한 것이다.

리"라며 "50년 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연화제를 진행해 왔다. 이제는 고려대만의 행사가 아닌 전국 대학생 불자들과 이 정신을 함께 기리고자 한다"고 대학생 불교운동의 기폭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본격적인 연화제 행사는 7월 5일 월정사 대적광전에서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들에 대한 애도를 표할 예정이다. 고불회는 월정사와 이날 장학사업 및 명예 신도증 관련 MOU를 체결할 계획도 밝혔다. 고불



고려대불교학생회가 주최하는 '연화제'가 50주기를 맞았다. 사진은 50년 간 역사를 담은 모습이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1973·1980·1995·2014년 모습.

삼보일배·대담·세미나 등 진행 50주기 추모지도 발간 예정

회는 "50년간 고불회는 여름수련회·농촌활동 등 실행활동을 월정사와 연계해 함께 했다"며 "MOU체결을 계기로 중심으로 돌아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불자학생들의 불심을 고취시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연화제 후에는 관련 학술세미나가 열려 주목된다. 학술 주제는 △동국대 김광식 교수 '탄허대선사와 대학불교운동' △고려대 조성택 교수 '우리시대의 부처님' 등이다.

한편 고불회는 연화제 50주기 추모지도 공식 발간한다. 추모지에는 50주기 기념 유가족 및 월정사 주지 스님 추모글, 고불회 및 교우회 법우 추모글과 50년 간 연화제 역사를 담은 기획이다. **박아름 기자**

고려대불교학생회가 당한 참사는?

1965년 7월 5일 고려대불교학생회 회원 38명은 오대산 월정사로 10일 간 하계 수련대회를 떠났다. 지도법사 탄허 스님과 함께 승려와 다름없는 산사 생활을 체험하던 중 참극이 벌어진 것은 수련회 회장을 하루 앞둔 7월 10일, 오대산 일대 암자 참배 후 원보산 스님 장례식에 다녀오던 중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10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무참히 사라졌다. 앞서 출발한 13명은 무사히 월정사에 도착했지만, 뒤따르던 13명이 상월사와 월정사 중간 지점 동파골을 건너다 급류에 떠내려갔다. 스크럼을 짠 채 계곡을 건너던 이들은 한 여학생이 미끄러지자 한꺼번에 쓰러졌고, 손명현 교수와 학생 2명은 구사일생으로 헤엄쳐 나왔으나 나머지 10명은 12일 낮 주검으로 발견됐다.

"인재는 양성 아닌 본래 인재를 깨우치는 것"

바른법연구원, 6월 8일 '금강경 교육법' 발표 '눈길'

취업 위주·지나친 사교육 등 한국 교육의 한계가 드러나는 때 새로운 불교적 교육 패러다임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금강경(金剛經)을 교육법에 적용하는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

바른법연구원(이사장 김원수)은 6월 8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문화관에서 <금강경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재양성 교육법>을 발표했다. 금강경 개경계 독송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임종록 한양대 과학기술대학 응용수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김원수 이사장의 소견발표로 이어졌다.

임종록 교수가 발표한 교육법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금강경 핵심사상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임종록 교수는 이것을 '행법(行法)'이라 지칭했다. 임 교수는 "할 수 없다" 혹은 "모른다"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음이 만든 무지(無知)가 자신

의 능력을 말살시키는 것"이라며 "금강경 실천으로 무지가 본래 없는 것을 알게 되면 무능이 사라지고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로운 자임을 깨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교수는 현행 대학 교육과 선진국 교육법 한계도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 및 선진국 교육은 첨단 지식인과 창의적 인재 발굴에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학생들이 학습된 행동을 벗어나 역경에 처할 경우 궁극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면서 "금강경식 교육은 본래 인재라는 것을 깨달아 참인격·참지혜·참행복을 갖춘 바람직한 인재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실천 방법으로 임 교수는 '무선생가든 부처님께 바칠 것'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잡념과 망상이 일어나는 순간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부처님께 그 생각을 바쳐야 한다"며 "이는 내적 고민을 떨쳐



바른법연구원(이사장 김원수)은 6월 8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문화관에서 <금강경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재양성 교육법>을 발표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임종록 한양대 과학기술대학 응용수학과 교수가 맡았다.

낸다는 의미다. 생각을 지속할 때보다 내려놓을 때 문제의 해답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임 교수는 '위빠사나·초월명상·간화선 등 우리나라에 소개된 모든 수행법을 30년 동안 체험해 왔지만 금강경 실천에서 수행 핵심에 이르렀다'며 "공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강경은 형상이 없는 무여 열반에 들게 한다. 이를 통해 본래 내가 한량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법연구원은 동국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생활 속의 금강경' 대강좌 수강생을 중심으로 7월 16~20일 3박 4일간 금강경 실천수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강경 실천수련은 스일체유심조 및 공의 진리를 깨치는 분묘도의 스일체유심조 진리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박아름 기자**

다인중앙회 조계종 신도단체로 창립

6월 3일 출범 법회... 지원 스님 총재로 선임

"다도 통한 포교 적극 나설 것" 4월 2일 포교원 신도단체로 등록

전국의 불자 다인(茶人)들을 한데 어우르는 신행단체가 출범했다.

한국불교다인중앙회는 6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다도를 통한 불법홍포를 다짐했다.

한국다인중앙회 초대 회장은 최순애 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이 맡았다. 총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상임지도법사에는 포교부장 송목 스님이, 지도법사는 신도국장 덕산 스님이 맡아 신행지도를 담당한다.

이날 법회에서 지원 스님은 차사를 통

해 "언제부터인가 우리 전통 차를 멀리하고 커피에 친숙해져 있다"면서 "전국 사찰과 지역별로 헌다 공양을 실천하고 다도를 통한 포교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UN 각국 대사에게 차를 올리고 한국차전 미군들이 안장된 알링턴 국립묘지에도 헌다 공양을 올리는 것도 추진해보자"며 한국 전통 차의 세계화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순애 한국불교다인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4월 다인회를 대표해 선혜 품계를 품수했다"면서 "늘 고마워하고 하심하는 마음 자세로서 맑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테니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다인회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한 포교원 교역직 스님과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박권환 한국차인연합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top79@hyunbul.com**



한국불교다인중앙회는 6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다도를 통한 불법홍포를 다짐했다.

병불련, 사단법인 출범위한 공식 행보

6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총회 개최

전국병원불자연합회가 설립 16년 만에 사단법인 공식 출범을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이사장 류재환)은 6월 2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사단법인 출범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의제는 사단법인 정관 토의 및 승인 안 사단법인 등기 이사 선임 승인 안 사단법인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안 사단법인 사업수지 예산 및 결산 검토 및 승인 안 등으로, 이날 결정사항에 따라 사단법인 정식 등록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류재환 이사장은 "인원과 정관으로 보

다 확실한 시스템을 갖춰 큰 의료봉사단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많은 봉사인들이 갖춰졌고 회원들의 열의가 대단해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류 이사장은 법인 설립 후 향후 계획도 밝혔다. 류 이사장은 "법인 하 조직 봉사시스템으로 포교원을 비롯한 중단 봉사활동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독자적으로는 5월경 인도 의료봉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지난해 8월에도 인도 북부 아삼지역에 해외의료봉사단을 파견, 아삼 시바시기가사에서 3천여 명을 진료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단, 98만원에 법당의 앰프 + 대출력 스피커 + 구즈넥 탁상 마이크 등 최고급 신형 장비로 교체해 드립니다.

- 기간 : 선착순 30개 사찰
- 신청방법 : 계약금 30% 입금 후 휴대전화로 희망일자 및 주소, 사찰명을 정확히 문자로 보내주시면 예약 순서대로 설치 일자 및 방문 시간은 스님과 협의해 결정 합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 법당전용 스피커
 - 250W
 - 350W
 -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 전화 (02)2697-9976
음향연구소, 무선설비기사 | 팩스 (02)2601-8284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화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